

2022년 3월 한옥희 선교사 기도소식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4)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긴장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의 주위들을 맴돌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분들께 주님께 서 주시는 평강의 안부를 가지고 문안을 드립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안보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 인도네시아도 한차례 오미크론의 파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일찍이 워드코로나로 전환하여서 모든 학교와 관공서 그리고 상점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교사역들도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사역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의 소식을 드립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2022년 3월 한옥희 선교사 기도소식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4)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긴장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의 주위들을 맴돌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분들께 주님께 서 주시는 평강의 안부를 가지고 문안을 드립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안보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 인도네시아도 한차례 오미크론의 파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일찍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여서 모든 학교와 관공서 그리고 상점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교사역들도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사역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의 소식을 드립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신학교 사역

돌아오는 7월 신학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학교도 오미크론의 파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셔서 큰 일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학기를 준비하는 강의사역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6월에 있을 졸업식과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들이 바쁜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모든 신학교 사역들과 활동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유치원사역

유치원의 사역이 다시 활성화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이제는 용감하게 어린 영아들까지 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8명이 유치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신학기에 40명의 원아를 받는 것이 기도제목입니다. 더불어 협소한 장소로 더 많은 원아들을 받지 못하는 것과 40명의 원아들도 협소한 장소로 속히 재건축을 요청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저희 유치원이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이 지역에 14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만은 기독교 유치원이며, 합동임이 저희 유치원에서 모이게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출료와 협원들이 기독교 가정의 원아들의 교육을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느끼며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사역

또한 인도네시아가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에 부모가 모두 직장을 나가는 가정의 어린이들의 Day Care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도 몇가정이 요청이 있어서 신학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사를 준비해야 할 상황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계획들 위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저희 교사들과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어서 앞으로 계속하여 주님앞에 전도와 교육사역을 통하여 이곳 인도네시아의 선교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솔라그라시아 유치원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숙사 사역



올 신학기에는 2-3명의 신입 기숙생을 받으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졸업한 기숙생들은 있었지만 3년동안 신입생들은 없었습니다. 올 신학기부터 기숙사도 활성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작년에 기숙사에서 자카르타의 신학교로 이전한 Meni와 Depi는 열심히 신학공부에 열중하며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년간 기숙사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와 지난 2월에 졸업한 Ocah가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기도중에 있습니다. 법학사로의 앞으로도 변호사가 되는것을 목표로 대학원의 진학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할 수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희 두란노 기숙사의 기도제목들이 주님의 은혜가운데 응답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 동안도 저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크신 주님의 은혜는 모두 기도의 동역자님들의 간절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잠시 땡기열도 지나갔지만 잘 회복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Lilik형제도 2년중 1년의 항암치료를 잘 받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며 잘 감당하고 있어서 귀하신 중보의 기도 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계속하여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 팬데믹의 상황을 종식시켜주셔서 온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속히 회복되어지며 각자의 삶과 사회 및 경제활동들이 정상화 되기를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

2022년 3월 27일 인도네시아에서 한옥희 선교사 올림